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3회 제5학기 목회자세미나 '평신도 훈련과 교회 성장' 주제로

9월 4일(월) ~ 11월 6일(월), 총 10주간 동안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빌립보서 강해와 특강으로

충현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은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평
신도 훈련과 교회 성장'이란 주제로 9월
4일(월) 오후 1시에 개강하여 11월 6일
(월)까지 총 10주간의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회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
해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1990년 가을에
제1학기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매 학기마다 천여명의 전국 목회자가
모여 강의를 듣고 친교를 나누며 목회정
보를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신청
을 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9월 4일(월)까지 교회 교
육국(전화 552-8200(교 503-505), Fax
567-6073)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번 학기에는 제1교시(오후 1시 ~ 2
시 30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빌
립보서 강해, 제2교시(오후 2시 50분 ~ 4
시 20분)에는 평신도 훈련과 교회 성장
에 관한 여러 강사들의 특강으로 진행되
는데 이번의 특강 강사는 박조준, 박종
순, 나경일, 방선기, 김의환, 김선운, 임영
수, 이종성 목사 및 한동대 총장 김영길
교수, 신상언 집사이다.

· 제5학기 목회자세미나 일정표

시간 일자	제 1 교시 13:00 ~ 14:30	제 2 교시 14:50 ~ 16:20
9월 4일	성경강해 빌립보서 연구 신성종 목사 미국 템플대학교 철학박사 현, 충현교회 담임목사	평신도의 영성 훈련과 성장 박 조 준 목사 프린스턴대학원 석사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9월 11일		효과적인 목회 전략과 행정 박 종 순 목사 폴리신학교 목회학박사 충현교회 담임목사
9월 18일		신세대를 향한 효과적인 복음화 전략과 방법 신 상 언 집사 명지대학원 석사 낮은울타리 발행인
9월 25일		전도 훈련과 교회 성장 나 경 일 목사 폴리신학교 목회학박사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10월 2일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교회 부흥 방 선 기 목사 콜롬비아교육대학원 철학박사 이랜드주식회사 사록
10월 9일		민족 복음화와 전도 전략 (네비우스 방법) 김 의 환 목사 미국 템플대학교 철학박사 충현교회 담임목사
10월 16일		목회자의 자기 갱신과 훈련 김 선 운 목사 미국 템플대학교 철학박사 현명동맹리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10월 23일		올바른 목회철학과 교회 부흥 임 영 수 목사 장로회신대원 졸업 영락교회 담임목사
10월 30일		사회 변동과 교회부흥 이 종 성 교수 샌프란시스코신학교 철학박사 기독교학술원 원장
11월 6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천국일꾼 양성 김 영 길 교수 미국 Rensselaer대학 철학박사 한동대 총장

학습 및 세례식

9월 1일(금) 오후7시, 갈릴리홀에서

교회는 95년도 5차 학습 및 세례식을
오는 9월 1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에
서 갖는다.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학
습 및 세례식은 금년들어 5번째로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
하는 성도들은 8월 27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8월 3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하는 예
비교육과 문답을 받아야 한다.

9월 3일(주일)에는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 성찬식을 거행한다.

회계감사, 8월 27일까지

95년도 상반기 감사를 아직도 받지 않
은 부서는 8월 27일(주일) 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회계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교관 403호 감사위원회
실에서 실시한다.

95년도 상반기 장학생은 95년
도 제1학기 성적표를 8월27일(주
일)까지 교육국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치 않을 경우 2학기
장학금 지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4회 국제 컴세미나 기도제목

9월 20일(수)~28일(목)

1. 강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2. 회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
고, 회교권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3. 초청된 이집트(28명), 수단(4명), 터어키(5명)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
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게 하옵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4. 컴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선교의 많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교권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5. 금번 컴세미나를 통하여 충현의 가족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
와 선교의 불을 붙여 주옵시고, 좋은 선교사들을 배출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6. 컴세미나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불타는
소명의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7.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하며

내일부터 부흥사경회 열어

충현기도원에서, 강사에 임종만 목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자”

교회설립 42주년을 맞으며 8월 28일
(월) 밤부터 8월 31일(목) 밤까지 충현기
도원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자”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특별히 부흥사경회로 모
이는 것이 특징이다. 강사는 물금교회 당
회장 임종만 목사로 '구원론'에 대한 집
중적인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임종만 목
사는 여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
하기도 했는데 신학생들에게도 어렵고
딱딱한 조직신학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강의하여 큰 도움을 주는 분
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사경회는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8시 총 10회에 걸쳐 구원론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기도원에서는 교통편을 마련하여 돕
고 있다. 교통편은 ① 충현교회 앞에서
기도원으로 출발(오전 9시 ~ 10시, 오후

6시 ~ 7시), ② 성남 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오전 10시 10분, 오후 7
시 10분), ③ 분당 전하리교회 앞에서 출
발(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 이때
촌 한신아파트 앞), ④ 기타 지역에서 가
야 할 사람은 광주터미널에서 이천 또는
공지암행 완행버스를 타고 대쌍령리에서
하차(충현기도원 안내 간판 있음) 도
보로 약 10분이면 된다. 또한 기도원에서
충현교회당으로 가는 차편은 매일 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경(저녁 예배 후)에
있다.

충현기도원에서 숙식을 원하는 사람
은 선착순 500명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
는데 식사는 기도원 식당에서 1식 1500
원씩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다. 개인적으
로 취사를 할 수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0347-64-
4425, 4472)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충현강단

기다려야 할 때에

(출 2:11-15)

1. 기다리지 못한 모세

본문에는 모세가 기다릴 줄 모르다가 사고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로 장년에 이르렀으니 일도 할만 합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 형제적인 동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민족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애굽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는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힘도 세고 바로의 궁전에서 훌륭한 학자들 밑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끝났는지 안끝났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제 다 완성된 것 같고 이제 일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때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다리지 못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렇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야곱이 그렇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사울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모세는 쉽게 판단을 내렸습니다(13절). 한 부분만 보고 쉽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부분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절대시하면 안됩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는 부분밖에 못 보는 데도 전체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다릴 줄 모르고 부분만 보다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누를 범한 것입니다.

2.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니까? 첫째,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모래에다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문제점은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았지 위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지 밑에만 바라보면 참지 못합니다. 좌우만 바라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만 보아서 안됩니다.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인간의 시간만 계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아도 좀 이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나이 팔십이 되어서입니다. 호호백발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원기 왕성하고 '내가 이만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버리고, 팔십 노인이 되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됐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시간만 계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어린 모세가 젖을 땔 때까지 길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모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단순히 유모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궁주를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굉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언젠가 이 아이가 크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는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두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기다리는 사람

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본문에 보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가 기다릴 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말씀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에는 추수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모든 것을 추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비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롬 8:28).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무력무력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험해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되는데, 좀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번씩 흔드시고 꼭대기들을 날라가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

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는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십니다.

둘째,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씨를 뿌려보세요. 그 뿌린 씨앗이 살아만 있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심기만 하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보면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지요. '이놈이 사람 노릇할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신앙 교육만 바로 받으면 때가 이르러 사람 구실을 합니다. 지식을 아무리 넣어주어도 신앙이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면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공로를 베푸셔서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전도와 소록도 여행을 마치면서

얼굴없는 천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진규

(집사, 13-1교구)

성령충만함을 받고

95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7개월이 지나가버린 8월 13일(주일) 오후 7시, 저녁예배를 마치고 베드로 13-1지회 회원, 40대 15명이 모여서 전도여행을 떠났다. 떠나기 전 담임교구 목사님이신 김찬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제13-1교구는 북쪽은 일산, 남쪽은 평택, 광명, 군포, 안산, 의왕, 수원, 시흥 8개의 시로써 구성되어 한번 모이기가 그리 쉬운 곳이 아니다. 그러나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는 데 똘똘 뭉친 우리들이었다.

이번 여행은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에서 지쳐 있는 여행객들과 종업원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원들은 4명이 1조가 되어서 서울을 출발하여 1조가 옥산휴게소에서 전도하고, 2조, 3조, 4조가 각각 한 휴게소를 맡았다. 우리 교회의 소식지인 「주간중헌」과 전도지를 돌리며 지친 여행객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한 휴게소에서 1시간 정도에 만날 수 있는 차량은 고속버스가 40대, 승용차는 70대, 트럭이나 화물차는 30여대 정도였다. 한 휴게소에서 약 700여명의 전도지가 돌려졌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행객들은 지쳐 있었다. 우리는 고양이 정음, 광주를 지나서 곡성휴게소를 목표로 하고 남행하는 4대의 승용차는 한밤에도 특권을 받은 양 휴게소마다 정차를 하고, 먼저 도착한 회원들은 뒤에 오는 회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밤을 맞았다. 서쪽 하늘에는 기울어진 달과 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은하수가 우리를 환영하는 양 반짝이기 시작했다.

15명의 우리 대원들은 졸립지도 않은지 약 2000여명의 전도지를 돌리며 몇 사람이라도 성령의 만남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남해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수줍은 듯한 전도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붙는 듯한 표정들이다. 구도 회원은 원래가 양반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곧잘 접촉을 가졌다.

순천을 지나서 벌교, 고흥을 지나 최남단인 녹동이란 곳에서 시계를 쳐다보니 새벽 3시 40분이 되었다. 우리들은 녹동제일교회에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시는 권사님들은 그 교회의 기도대장인 권사님들이었다. 약 15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니 우리들의 전도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새벽기도회를 마친 회원들은 이번 여행에 공금한 것이 많이 있는 양 배를 타는 선착장으로, 수산시장으로 돌아다니며 낚시 등 놀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하

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평소 같으면 좀 회의적인 회원도 있을 법한데 이번 여행에서는 모두들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강한 기도로 사탄의 계교는 발을 붙일 틈이 없는 것 같았다. 모두들 사업과 가정 걱정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또다시 전진했다. 그곳에서 별로 멀



지 않은 남쪽에는 약 18km 되어 보이는 큰 섬이 보였다. 잠시후 7시 30분이면 우리들은 그곳을 방문하기로 하고 흩어진 집들을 찾았다.

이른 아침 어촌의 방파제에 널려 있는 그물들과 널실되는 바닷물 위에서 갈

매기는 찌죽찌죽 날고 있는데 우리들은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잠시나마 기도를 하게 되었다. 오늘의 일정과 우리들이 만나야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두고온 교회, 각 가정, 직장들을 위하여 오늘 따라 기도는 자꾸만 길어지는데 배를 타야 할 시간이 임박해지고 통성의 기도소리는 커져만 간다.

배를 타야 할 시간이 되어 선착장에 도착하니, 소록도 5개 교회의 담임목사이신 박창훈 목사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마중을 나오셨다. 이곳은 통제구역이라서 마음대로 누구나 드나들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도착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중앙교회로 인도하셨다. 우리들이 도착하니 이미 경기도, 서울 등지에서 참석한 성도들이 300명 정도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성가대석에는 현지의 형제와 자매님들이 있었고 그들은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힘들지만 찬양과 하모니가 연주를 하였다. 8곡을 3줄씩 불러 24줄이 되니 들으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회원들은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아멘과 감사가 연발 터져나왔다. 팔목으로 하모니카를 붙잡고 애써 연주하는 그 노인은 이미 소록도 생활이 50년이나 되었다고 나중에 소개하기도 했다.

소록도는 사랑으로 들끓고

손바닥도 없는 그 분들은 박수소리가 찰싹하지 않고 턱턱 맥빠지는 소리가 났지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분들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천사와도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았다. 우리 회원중에는 비위가 좋지 않은 회원도 있었지만 그들이 열성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약 2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합주 연주가 끝이 났는데도 아쉬움을 그대로 었다. 우리들은 숙소를 안내받고 땀에 젖은 옷을 벗으며 잠시 숨을 돌리려고 하니 12시 정오기도회가 있다고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성교회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 성도들이 안부를 물었다. 자신들도 한국의 모범교회인 충현교회와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성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으니 꼭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점심을 먹기 전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니 삼풍백화점 사건이며 우리의 적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여도 거기에 1300여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우리 나라는 참 복 받은 나라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은 대통령, 육해공군, 위장자, 교육자, 공무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다.

점심을 먹고 섬 주위를 한바퀴 돌고 여러 시설물을 구경하며 3개 교회를 순방하니 하나뿐 시인의 보리피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의 시설을 견학하니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붉은 벽돌에는 어언간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고 안내자는 말했지만 하나의 부실공사가 보이지 않았다. 손이 아닌 팔목으로 쌓아 올렸다는 그 분의 얼굴은 코도 눈썹도 보이지 않는 70이 훨씬 넘는 노인이었지만 교회의 산 역사였다. 현금할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길러 가발로 팔아서 이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있는지 말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끊어지질 않았다.

다시 밝은 소록도

간밤에 절친 잠이 깨기도 전에 막대기를 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창문을 내다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을 못보셔서 지팡이로 땅을 치며 교회에 오시는 데 눈이 보이지 않아 시간을 모르시고 새벽 2시부터 기도회에 오셨다. 새벽기도회 때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니 충현교회 식구들이 특송을 하라고 권유하시기에 우리 회원들은 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힘써 불렀다. 일찍부터 떠나려는 우리들에게 불편을 나누어주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 글썽이는 눈망울들은 우리 서로 기도해요, 예수님과 당신들을 위하여라는 여운을 남긴채 4대의 승용차는 서울로 향하여 기약없는 소록도는 가물 거리고 뜨거운 그곳의 형제들의 기도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 소록도 중앙교회 앞에서

종교인구수 통계 발표, 인구 3분의 1이 신자 2위는 이슬람

최근 한 통계 결과 전 세계 인구중 기독교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 인구 역시 5명중 1명꼴로 알려졌다. 미국 리체몬드외 통계전문가인 데이비드 팔레트씨는 "현재 세계 인구는 58억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19억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팔레트씨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10억6천만) △천주교(7억7천만) △불교(3억4천만) △힌두교(1억2천8천만) △정교회(9천만) △시크교(2천500만) △유대교(1천3백50만) △무신론(11억8천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팔레트씨는 "기독교인 가운데는 카톨릭 인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 10억5천만명에 달하며 프로테스탄트가 3억5천4백70만명이며 정교회가 1억8천9백60만명, 성공회가 5천7백40만 명 등의 교세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신교 가운데 제일 큰 그룹인 오순절과 성령운동파에 속한 교인들은 무려 4억6천만명에 달해 지난 70년 이후 6배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토·막·소·식

◆ 유치부는 성경퀴즈대회를 오늘(27일) 열기로 하고 지난 주일에는 예선을, 오늘은 본선을 치른다. 또한 9월 24일에는 반별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 초등4부는 9월 3일(주일)까지 잠언 전장을 써오기를 바라고 있다.

◆ 초등5부는 9월 17일(주일)에 성경퀴즈회를 연다. 범위는 사도행전.

◆ 중등1부에서는 8월 27일(오늘) 성경암송 1차대회와 반별 성경쓰기대회를 갖는다. 반별성경쓰기대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범위로 하고 성경암송대회 1차의 범위는 마태복음 5장, 2차대회는 9월 10일에 하며 범위는 마태복음 6~7장.

◆ 중등2부는 9월 24일(주일)에 작은 음악회와 초청전도집회로 모인다. 초청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도 준비하고, 10월 28일 중등1·2·3부 연합으로 실시하는 '시와 찬양의 밤' 행사에 문학과 찬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그림과 시 등의 작품을 제출하여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 대학부는 2학기 제자훈련 초급·중급반을 개강한다. 기간은 9월 2일(토)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30분까지이다. 관심있는 사람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장년2부는 욕기 전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예선은 9월 17일(주일) 13시 20분에, 본선은 9월 24일(주일) 13시 20분에 교육관 314호에서 갖는다. 장년2부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새가정부는 9월 24일(주일)에 성경퀴즈대회, 9월 30일(토)에 추계야외에

배를 갖는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치 않는 장남감을 수집하고 있다(봉봉카, 보행기 등).

◆ 새가족양육부는 성경읽기, 쓰기대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범위는 신약전권으로 기간은 9월 10일(주일)까지이다. 9월 17일(주일)에는 처별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지정곡은 102, 234, 388, 455, 168장이며 자유곡은 484, 46, 318, 543장.

◆ 임마누엘찬양대는 9월부터 지정좌석제를 실시한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책임져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자원봉사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 의 전인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사업을 실시하는데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봉사영역
 - ① 작업훈련실 :
 - ① 작업훈련보조, ② 생활지도, ③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④ 기초학습 지도 (국어, 산수)
 - ② 조기교육실 : 미취학 아동 조기교육 보조
 - ③ 기타 복지관 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봉사기간 : 주1회 4시간 이상 원하는 시간 배정
3. 모집기간 : 1995년 8월 20일 ~
4. 문의처 :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전화 564-4885, 562-0548)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8/30(수) 귀국
 - 신성종 목사 : 8/27(주일) 목양교회 설립기념예배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삼동백화점 봉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추석절 맞아 동산 후원 관리비 납부를

추석절을 맞으며 충현동산에 성묘하러 가는 성도들은 동산 후원 관리비를 내줄 것을 동산관리부에서 부탁하고 있다.

동산 관리 후원비는 하수로 보수 및 기타 봉괴된 축대 보수 등 동산공원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 비용은 교회 사무국 동산담당에게 내거나 충현동산 현장에서 충현동산 관리원에게 내면 된다.

금액은 94년까지는 년 2만원이며, 95년부터 년 3만원이다.

밀알선교단 워드입력 자원봉사자

일원동의 은혜교회로 이전한 밀알선교단에서는 워드입력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PC가 집에 있으면 자택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워드입력을 해서 디스켓으로 건네주면 매킨토시가 읽을 수 있는 전자로 출력해서 매킨토시에게 보급한다.

· 연락처는 밀알선교단 : 3411-6891
장형석 목사

제5회 충현올림픽 표어 공모 및 피켓걸 공개 모집

오는 10월 3일(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될 제5회 충현올림픽의 전교인 참석 및 출전 사기 앙양을 위하여 표어를 공모하며, 당일 행사의 진행 질서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하여 피켓걸을 공개 모집합니다.

1. 표어 공모

- ◆ 내용 /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5회 충현올림픽 목적에 부응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 표어말 수 제한 / 10자 이내로 하되 3행으로 할 것
- ◆ 용모 마감 / 8월 27일(주일)까지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국 총무과)
- ◆ 당선작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올림픽 표어로 사용한다.

2. 피켓걸 공개 모집

- ◆ 자격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용모가 단정한 자(미혼)
② 신장 165cm 이상인 자
- ◆ 전형 방법 / ① 1차 : 사진(얼굴 중심 명함판 1매, 전신사진 1매(정면))
② 2차 : 실물 면접
- ◆ 사진 접수 마감 / 9월 3일까지 <교구 추천도 가능함>
- ◆ 채용된 피켓걸은 제5회 충현올림픽 행사의 선두 피켓걸로 대우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 ◆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교구를 표시할 것

주후 1995년 8월 13일

제5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분과

하나님을 외면했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처음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그런 행사를 하나 보다, 또 귀찮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경학교 첫날 모든 것이 귀찮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 다. 그러던 중 뜻(목표)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여태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는 목표가 없었고,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 다. 저는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도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는데 나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삶에 주를 영접하고 내 삶에 뜻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반) 지도 선생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어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빌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영접하니 마음의 안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삭(반) 지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 다.

(위의 글은 올해 19살인 한 소년원생이 쓴 것입니다.)